

# 인간중심의 과학을 위하여

## 메리 미즐리의 「구원으로서의 과학」을 읽고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기포드 강좌(Gifford Lecture)라면 나는 숙연해진다. 아담 로드 기포드(Adam Lord Gifford)라는 분이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 내 주변의 몇몇 사전을 들추어 보아도 이 분의 소개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포드 강좌에서 행한 강의 내용이 책이 되어 출판된 단행본 중에서 너무나 나의 심금을 울린 명저가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라는 명저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해 즉 1927년과 1928년 두해에 걸쳐 에딘버그대학에서 이루어진 기포드 강좌의 강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 유명한 하이젠퍼그의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physics and philosophy*)도 1955년 겨울 학기에서 앤드류스대학에서 이루어진 기포드 강좌의 소산이었다. 유명한 신약성서 학자인 루돌프 불트만(Rudolf Bultmann)의 「역사와 종말론」(*History and Eschatology*)도 1955년 2월 7일에서 3월 2일까지 에딘버그대학에서 행해진 기포드 강좌의 강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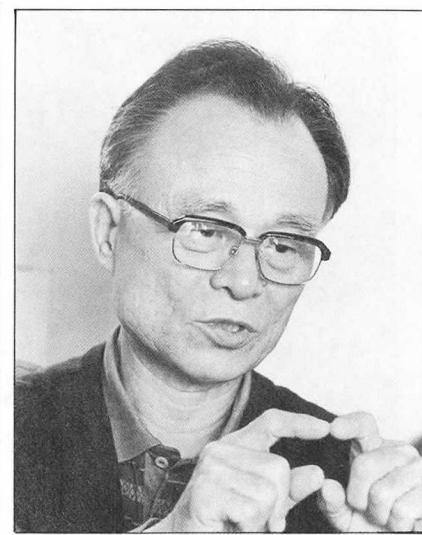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975년과 1976년 에딘버그대학의 기포드 강좌에서 비롯된 스탠리 재키(Stanley h. Jaki)의 「*The Road of Science and The ways to God*」라는 저자의 소개를 보면

스탠리 재키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요시아 로이스(Josiah Royce), 존 듀이(John Dewey), 폴 틸리히(Paul Tillich) 그리고 라인홀트 니버(Reinhold Niebuhr)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기포드 강좌에 초빙된 미국인이라는 점을 특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기포드 강좌의 초청연사가 얼마나 존경받는 자리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 우연히 눈에 띈 제목

나는 「언어본능」(*The Language Instinct*)이라는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눈에 띈 「*Science as Salvation : A Modern Myth and its Meaning*」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였다. 저자가 'Mary Midgley'였다. 영어책은 아무래도 우리말이나 또는 일본말(내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일본어는 우리나라 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책을 읽을 때보다 부담이 같다. 그래서 몇십페이지 정도 읽다가 읽혀지지 않으면 그만두기가 일쑤다. 그러나 이 책의 경우는 빨려 들어갔다고나 할까, 여하튼 2백20여 페이지가 되는 분량을 독파할 수가 있었다.

저자에 관해서는 별로 깊이 알 수가 없었다. 책 표지에 소개된 바로는 도덕철학자(Moral



제목에 이끌려 산 이 책은 손에

잡자마자 빨려들어 2백20여페이지

분량을 독파했다. 저자에 대한 소개가 없어 궁금했는데 저명한 기포드강좌에 초빙된 것을 알고 새삼 숙연해졌다. 이 책은 전체 19장에 걸쳐 과학과 종교의 문제를 캐들어간다. 어째서 우주는 존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가의 물음은 곧 과학 앞에 선 인간의 구원문제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Philosopher)로만 되어 있고 저서로는 「*Beast and Man*」, 「*Wickedness*」 그리고 「*Wisdom, Information and Wonder*」가 있다고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이름이 처음 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전에 사 두었던 John Durant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Darwinism and Divinity*」라는 책을 뒤져 보았더니 그 책 안에 메리 미즐리의 「*The religion of Evolution*」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다.

전에 한번 통독했던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훑어 보았더니 이 저서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에 소개된 필자의 소개를 보았더니 역시 저술가이며 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덕철학자라는 정도의 내용 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을 보니 이 책의 내용이 1990년 봄에 에딘버그대학에서 행해진 기포드 강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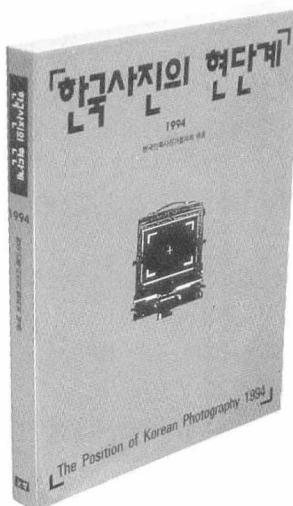
기포드경의 유언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이 강좌는 과학과 종교분야에서 인류에 공헌한 분들이 주로 연사로 초빙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책의 내용이 당초 기포드강좌에서는 「구원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구원」이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미 과학과 종교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은 중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체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첫장의 제목은 「구원과 학문」(Salvation and Academics)으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의 저자들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워딩턴(C.H. Waddington) 버널(J.D. Bernal), 포퍼(K.R. Popper), 도킨스(Richard Dawkins), 호킹(Stephen W. Hawking)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등이다. 벌써 인용문헌의 순서에서 이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

### 과학과 종교의 두 지주로 사는 인간

사람이라는 동물은 과거의 긴 역사를 통해 서 축적해온 과학적 지식이 쌓아올린 큰 틀, 즉 진화라는 틀안에서 정신 즉 마음(mind)을

## 한국예술사진의 흐름 총망라

### 「한국사진의 현단계」 1994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예술은 흘러가는 시간 속의 '세상찍기'이다. 이 세상은 사진작가의 눈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롭게 탄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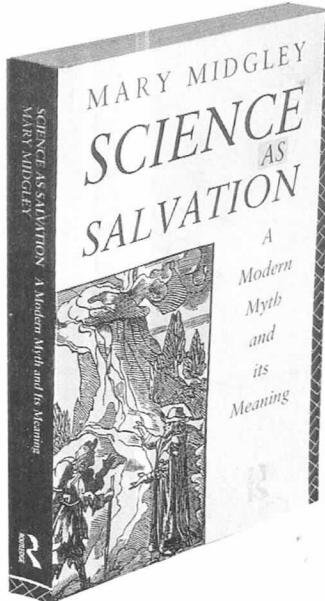
이 책은 우리나라 사진가 1백여명이 찍어낸 '세상'을 담고 있다. 때론 무채색으로 때론 색깔을 담은 채. 또 풍경이나 기록 초상 누드사진에서부터 사진가의 개인적 심상을 찍어내는 순수예술 사진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사진이 총집결돼 있다.

이 책이 1백여 사진가들의 작품집인 동시에 자료집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한 현대

사진 예술의 흐름이 다채롭게 실험,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추구가 자유롭게 표출되는 동시에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는 방법도 진중하게 모색되고 있다.

팜투성이 농군의 마디굵은 손, 탄재를 뒤집어 쓴 광부의 체념어린 눈빛, 갈 곳이 없는 노인들과 양로원에 갇힌 할머니 등 리얼리즘이 극대화된 작품을 비롯해서 추상적 이미지로 강렬한 비판과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독특한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사진들은 그대로 한국 사진예술의 현위치를 말해준다. 민예총 산하 한국민족사진가협회가 사진 전문가집단으로 출범한 지 1년만에 처음 선보이는 사진집이다.

한국민족사진가협의회 엮음 / B4/ 202면 / 20,000원 / 눈빛



갖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정신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부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Marxist)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대식학들 즉 니덤 베날 그리고 홀데인(Haldane)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소위 사람의 과학적 활동의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해온 과학적 태도는 호킹이 말하는 바 어째서 우주는 존재하고 그리고 바로 그안에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같은 물음에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될 때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이성은 비로소 신(神)의 마음을 알게 될 개개를 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과학과 종교라는 두 장르를 지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물음과 대답은 사람의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자크 모노와 프리만 다이슨이다. 「우연과 필연」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자크 모노의 고뇌를 제5장 '믿음의 기능'(The Function of Faith)에서 심도있게 다룬다. 결국 모노가 탄식했듯이 완전히 비인격화되고 그저 냉혹한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주는 우리 눈에는 황량한 암흑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애타게 부르짖게 된다.

저자는 왜 '과학의 가치'(The Value of Science)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너무나 현란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바로 과학과 종교는 우리가 생

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안에서 그 어떤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와 우리의 마음이 교감될 때 종교도 과학도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성립된다는 저자의 주장은 도처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14장 '진화와 사람의 신격화'(Evolution and The Apotheosis of Man)라는 제목 하에 장차 인류의 구원을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까지 생각한 다이슨에게 초점이 모아진다. 여기서 오늘의 발달한 유전공학과 정보공학의 결합으로, 말하자면 분자생물학자인 윌리엄 대이(William Day)가 말한 새로운 인종 '오메가 맨'(Omega Man)의 탄생에서 어찌면 자크 모노가 탄식한 황량한 암흑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과학자들의 현실적 접근 촉구

그러나 과연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의 문제가 그와같은 면 장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마지막 장 '정신을 지키면서'(Censoring The Spirit)에서 배로우(J.D. Barrow)와 티플러(F.R. Tipler)의 저서 「인간중심의 우주원리」(The Anthropic Cosmological Principle, 1986, Oxford Univ. Press)안에서 "만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물종이 기계적 후손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문명은 결국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적 후손을 갖는 문명만이 무한히 지속될 것이다"는 인용문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물권인 지구 이외 행성에서의 생명체를 그리는 현대기술문명의 잘못된 꿈을 상기시킨다.

톰슨(Francis Thompson)과 하우스만(A. E. Housman)의 두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기술문명을 사막 안에 외로이 서 있는 거석상으로 노래한 셀리(P.B. Shelly)의 시 「오지만디아스」(Ozymandias)에 비유한다. 그리고 병들고 찌들어가는 우리가 젖줄을 달고 있는 오늘의 이 지구와, 그뒤에 서식하고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과학자들의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을 촉구하면서 대미를 마무리고 있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 발행 취업예정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 편집 취재기자로 첫발을!

◎ 24시간 자동응답안내 735-4450(100※)

편집교육을 국내최초로  
본격화시킨 교육기관  
1987년 출판문화의 선진화  
에 대한 확신을 갖고 편집  
실무교육을 연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편집실무교육  
안과 교재개발을 완료하여  
1988년 3월 국내 최초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전문  
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었습니다.



강사와 학생간의 깊은  
우대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출  
판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에 대해 충분한 카운셀링  
가 되어주고 있으며 교육  
진행중 학생들과 담임강사  
가 함께하는 1박2일 워크  
숍을 통하여 편집인으로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장  
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 은 완전히 배제

본격적인 출판편집실무교  
육의 장으로 본원의 교육  
성과를 인정하여 본원을  
한국출판학회의 추천교  
육기관으로 선정(89.1.30)해  
주었으며 한국과학기술대  
제협회에서는 편집인력의  
지정 교육기관으로 위촉  
(88.12.28)하였습니다.



#### 각 반별로 담임강사가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교육내용 중  
때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를 초빙하여 강의가 이루  
어지기도 합니다.

#### 편집현장과 밀착된 교 육체계

출판현장에서 필요한 컴퓨  
터 워드프로세서, 교육과  
출판사, 제작소, 인쇄소 등  
을 견학하여 곧바로 실무  
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  
용을 정립하여 현장적응력  
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짜한 문구는 쓰지 않겠  
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밤낮을 거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  
생의 95%가 취업되는 성  
과를 올렸습니다.

#### 과정별 잡지 단행본을 직접 기획 제작

체계적인 편집이론과 충분  
한 실습을 거친 후에 잡  
지, 단행본 등 기별 과정별  
로 시판증인 잡지, 단행본  
등과 동일한 수료작품집을  
직접 기획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로 전자출판 실무교육 실시

현직출판계 편집자나 처음  
으로 컴퓨터 편집을 배우  
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는 본원 정규과정 중  
기본과정 이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  
한 지식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정교육기관  
**서울편집학스쿨**

문의(代) 672-1841, FAX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